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신지애 6승...KLPGA 시즌 최다승

한 시즌 상금 첫 4억 돌파 역전 불허...여유롭게 우승

■ SK 에너지 인비테이셔널 최종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서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신지애(19·하이마트)가 KLPGA 사상 최초로 시즌 6승과 단일 시즌 상금 4억원 돌파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신지애는 16일 경기도 용인의 88골프장 서코스(파72·6천269야드)에서 열린 SK 에너지 인비테이셔널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합계 12언더파 204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전까지 올 시즌 상금 3억2천516만 6천677원을 기록하고 있던 신지애는 우승 상금 1억원을 보태 국내 남녀 프로골프를 통틀어 처음으로 상금 4억원을 넘어섰다.

개인 통산 상금은 두 시즌만에 7억9천900여만원에 도달했는데 26개 대회만에 사실상 8억원을 벌어들여 한 대회당 평균 3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또 올해 6승째를 거두며 1980년과 1982년 구옥희(51·L&G)가 기록한 5승의 시즌 최다승 기록도 갱신했다.

4월 MBC투어 엠씨스퀘어컵 우승으로 시즌 첫 승을 거둔 신지애는 6월 한 달에만 힐스테이트 서경오픈, MBC투어 비씨카드 클래식,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대회 등 3승을 보냈고 8일 끝난 KB국민은행 스타투어 4차대회로 5승을 채웠다.

올해 11개 대회에 나와 6승을 거둔 신지애는 승률 50% 이상의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신지애는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날씨도 안 좋아 후반에 집중력을 잃었지만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미국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하는 것이 목표지만 우선은 국내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실력을 쌓겠다"고 말했다.

2005년 이 대회 우승자 신지애는 2번 홀(파4)부터 집값다리로 버디 3개를 뽑아내며 치고 나가 승기를 잡았고 8번 홀(파5)부터 2연속 보기로 주춤했지만 다시 10번 홀(파5)과 11번 홀(파4) 연속 버디로 이를 만회했다.

신지애는 2위 홍진주(24·SK에너지)에 3타 앞선 15번 홀(파3)에서 티샷이 벙커에 빠져 위기를 맞았지만 파로 잘 막았고 홍진주의 버디 퍼팅을 빌급 돌려 나와 위기를 벗어났다.

바로 다음 홀인 16번 홀(파4)에서 홍진주가 더블 보기로 무너져 승부가 사실상 정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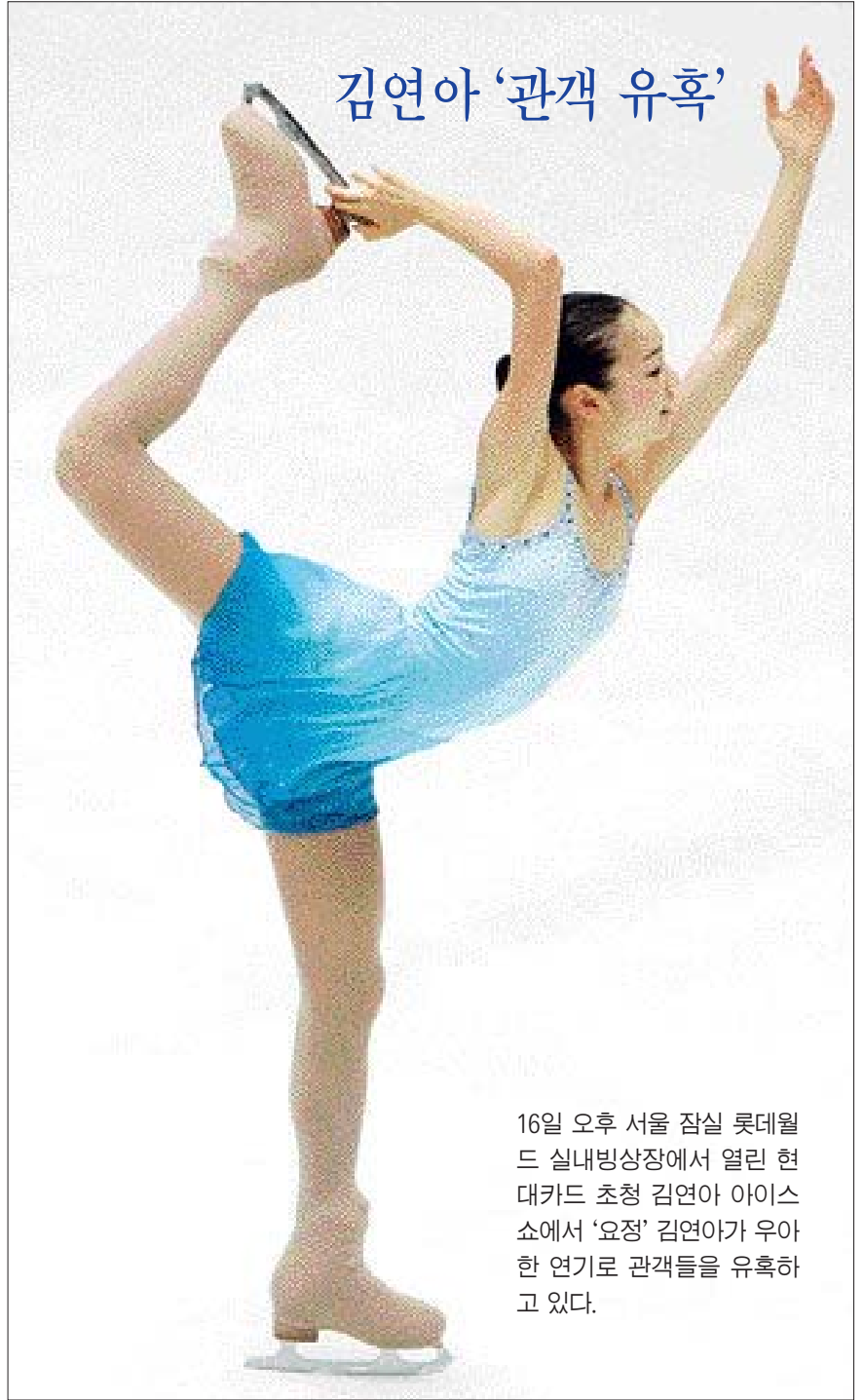
홍진주는 3타 만에 공을 그린에 올리더니 약 1.5m 거리의 파퍼트에 이어 한뼘 거리의 보기 퍼트마저 실패하면서 이 홀에서 파로 선방한 신지애를 추격할 힘을 잃었다.

홍진주는 마지막 홀에서 벙커에 빠져 2위 자리까지 위태로웠으나 가까스로 파로 막는데 성공해 박희영(20·이수건설)과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미현(30·KTF), 김영(27), 배경은(22·CJ) 가운데 배경은이 5언더파 211타로 공동 6위를 차지하며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6일 용인 88CC에서 열린 한국여자골프 SK 에너지 인비테이셔널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한 신지애가 트로피를 들어보이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아 '관객 유혹'

16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현대카드 초청 김연아 아이스쇼에서 '요정' 김연아가 우아한 연기로 관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천수 첫 출격 에인트호벤전 될 듯

네덜란드 일간지 보도

네덜란드 언론이 이천수(26·페노르트) 데뷔전 상대 팀으로 페노르트의 '라이벌' 에인트호벤을 꼽았다. 네덜란드 일간지 '텔레흐라프'는 16일 "이천수가 다음 주 페노르트에 합류한 뒤 23일로 예정된 에인트호벤과 원정경기에 출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텔레흐라프는 "그동안 주전 공격수

들이 팀을 떠났고 새로 보강한 네덜란드 국가대표 출신 안드레슬 슬로리는 장기 부상중으로 당장 페노르트의 측면 공격진에 공백이 생긴 상태"라며 "중앙 골잡이 로이 마카이에게 기회를 만들어 줄 측면 공격수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천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줄지 페노르트 팬들의 기대가 크다"며 "아시아권 축구대회에서 보여줬던 기량이라면 주전 경쟁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프리미어리그 소식

설기현 후반 교체 투입 평점 6

이영표 풀타임 출전 '분투했다'

프로 2년차 이승호 생애 첫 우승

KPGA 삼성베네스트오픈 최종

프로 데뷔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다섯번이나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우승컵과 인연이 없었던 이승호(21·투어스테이지)가 '준우승 징크스'를 벗고 우승트로피와 입맞쳤다.

이승호는 16일 경기도 가평의 가평베네스트골프장(파72·7천30야드)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 SBS코리안투어 삼성베네스트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정상에 올랐다.

2타를 줄인 김형태(30·테일러메이드)를 2타차로 따돌린 이승호는 지난해 정규투어에 뛰어들어 2년만에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국가대표 상비군을 거쳐 2005년 프로 선수가 된 이승호는 2부투어에서 상금왕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정규투어에 입성한 유망주. 지난해 SK텔레콤오픈에서 공동2위에 올랐지만 같은 대회에 출전한 최경주(37·나이키골프)와 위성미(18·미국 이름 미셀)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고 지난해 조트오픈과 비발디파크오픈 등 두차례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팬들은 우승자만 기억했다. 올해부터 일본프로골프투어(JPGTO)에 진출한 이승호는 JCB클래식 준우승에 이어 미즈노오미우리클래식에서도 2위에 올라 어느덧 '준우승 전문'으로 자리 잡았다. 브리티시오픈 출전권까지 따낸만큼 빼어난 실력을 지닌 선수지만 우승 경력이 없기에 이름을 알릴 기회를 잡지 못했던 이승호는 '슈퍼투키' 김경태(21·신한은행)를 상대로 역전 우승을 일궈내며 한국프로골프의 새로운 스타로 등장했다. 최종 라운드는 막판까지 우승자를 설볼리예단할 수 없는 대접전이었다. 13번홀 보기로 김형태에게 선두를 내준 이승호는 15번홀(파4)에서 핀에서 8m 떨어진 그린 언저리에서 퍼터로 친 세번째샷이 홀에 빨려 들어가면서 승기를 잡았다. 15번홀에서 2m 파퍼트를 놓친 김형태를 2타차로 밀어내고 단독 선두에 오른 이승호는 16번홀(파5)에서 절묘한 로브샷으로 1m 버디를 잡아내 3타차로 달아나며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사상 첫 시즌 상금 4억원 돌파에 도전했던 김경태는 3위 상금 4천만원을 받아 시즌 상금이 4억2천962만원으로 불어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우즈, 상금 1천만 달러 눈앞

PGA 투어 챔피언십 3R 선두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시진)가 1천만달러의 상금을 주는 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1위를 눈앞에 뒀다. 우즈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골프장(파70·7천145야드)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인 투어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버디 7개를 뽑아내며 6언더파 64타를 때려 중간합계 19언더파 191타로 선두를 굳게 지켰다. 프로 선수가 된 이후 최종 라운드를 단독 선두로 나서면 100% 우승컵을 거머쥔 '역전불허'의 명성을 쌓아온 우즈는 이로써 투어챔피언십 제패를 사실상 예약했다. 지금까지 우즈는 PGA 투어에서 43차례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서 40차례 우승을 거뒀고 우승을 놓친 세차례는 모두 공동 선두일 때였다. 더구나 최종 라운드에서 챔피언십에서 함께 경기를 치를 선수는 투어챔피언십 출전자 30명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47세의 마크켈베키아(미국)로 정해졌다. 이날 7타를 줄여 우즈에 3타차 2위(16언더파 194타)에 오른 켈베키아는 "우즈는



정말 넘기 힘든 높은 벽"이라면서 "우즈가 실수를 많이 한다면 모르지만 그건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냐"며 일찌감치 꼬리를 내렸다. 우즈가 '시리우'대로 우승을 차지하면 시즌 7승과 함께 통산 61승을 거두게 되며 우승 상금 126만달러 뿐 아니라 플레이오프 1위 상금 1천만달러도 거머쥔다. 특히 플레이오프 1위 상금 1천만달러는 포인트 순위에서 우즈를 제칠 수 있는 스티브 스트리커(미국), 미켈슨 등이 모두 부진해 우즈가 우승을 놓쳐도 우즈 몫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분석이다. '뱅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는 버디는 한개 밖에 잡아내지 못하고 보기 6개를 쏟아내는 난조 끝에 스트리커와 함께 공동2위로 추락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의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서 0-3으로 패했다. 영국 축구전문 채널 '스카이스포츠'는 이날 이영표에게 '분투했다(Struggled)'는 평가와 함께 평점 6점을 매겼다. 또 설기현에 대해서 10여분간의 짧은 출전 시간을 감안해 '영향을 주지 못했다(No impact)'는 주석과 함께 평점 6점을 줬다. 한편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은 한기위 휴가를 받아 모처럼 가족과 함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막바지 재활에 전념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예고없이 귀국한 박지성은 특별한 외부 일정없이 가족과 휴가를 보내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27~28일경 영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박지성의 에이전트인 JSM리미티드 김정수 팀장은 "재활 기간이 오래 걸리고 현지 생활이 다소 지루하다 보니까 구단에서 한 경기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두고 특별휴가를 줬다. 박지성 선수는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외부행사에 전혀 참석하지 않고 오로지 가족, 지인과 함께 휴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SM리미티드는 이번이 아마도 마지막 휴가가 될 것 같다. 이후에는 막바지 재활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